



용소막 성당

설립 일. 1904. 5. 4
주보성인. 루르드의 성모

2024년 10월 6일
연중 제27주일

제1독서

창세 2,18-24

제2독서

히브 2,9-11

복 음

마르 10,2-16



들빛 바로가기

www.wj catholic.or.kr

화답송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영성제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마르 10,8)



최재도 바오로 신부 / 성소국장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부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은 묵상을 통해 신자들에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말씀을 쉽게 풀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난감한 말씀이 바로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제인 저는 부부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부에 관한 강론이 피상적인 전달이 되지 않을까 늘 고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름다운 부부생활을 해 나가는 이들을 접해왔기에 그들의 삶을 토대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본 아름다운 부부는 마다가스카르의 아르망과 젤뚜르다 부부였습니다. 아르망은 당시 본당의 공소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본당에는 26개의 공소가 있었는데, 그 공소들의 예비자와 신자들 교육 전담이 아르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중책을 맡으려면 평신도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수도에서 3년간 진행되는 수업을 이수해야 그 역할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3년의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업 기반의 생활이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기르는 소와 농사일은 이웃집에 맡겨놓고 아르망과 젤뚜르다 부부는 수도로 함께 떠났습니다. 수도는 차로 이틀이나 걸리는 거리였기에 3년 동안 한 번도 고향 집에 내려와 보지 못했습니다. 어렵사리 평신도 신학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고향 집은 말 그대로 처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맡겨놓았던 소는

도둑맞아 사라져 버리고, 전답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본당 신부님이 조금 도와주기는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 두 부부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자신들에게 버거운 일을 맡겼던 교회를 원망하고,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는 더욱 교회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너진 살림은 자신이 다시 일구면 된다고 젤뚜르다는 남편 아르망이 배워온 신학 지식을 가난한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진심을 다해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 두 부부의 노력으로 선교의 불모지였던 그 지역은 가장 큰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마르 10,8) 이보다 부부에 대해 더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 몸이기에 선택도 함께하는 것이요, 고통도 함께하는 것이지요. 아르망의 선택에 젤뚜르다가 불평만 하고 반대만 하였다면 하느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젤뚜르다의 묵묵한 지지와 인내 그리고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르망은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한 몸처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 안에서 기적 같은 하느님의 계획이 펼쳐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참으로 큰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부부인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시오(골로 3,16)

성당은 언덕에 세워져 있어 주변에서도 성당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당 우측에는 5그루의 오래된 고목이 활처럼 둥글게 휘어져 성당을 감싸는 듯하고, 성당의 좌측 언덕에는 성당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사제관이 자리 잡고 있다.

1896년 원주 본당의 공소시기에 초가 8칸, 10칸의 작은 경당을 성당으로 사용하였고 1914년에 현재의 성당과 사제관이 신축되어 오늘에 이른다. 또한 1980년대에는 수녀원, 유물관, 두루의 집, 성체조배실이 준공되었으며 1986년 5월 23일 강원도의 유형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되었다.

선 신부는 1915년 8월 8일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용암리(속칭 용소막)에서 태어났다. 1942년(28세) 2월 용산 성심신학교 졸업과 함께 2월 14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성신대학 교수로 지낸 뒤, 로마로 유학하여 올바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후배 양성과 성서 연구에 몰두하였다. 선 신부는 구약성서 제1편인 창세기를 간행하고, 1960년 3월 25일에 성모영보수도회를 설립하였으며, 1968년(54세)부터 신구약 성서 공동 번역하고 가톨릭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리고 1976년(62세) 7월 갑상으로 선종하였다.



▲ 선종완 신부 유물관

1904년 이후 **120년 동안의 용소막 성당**은 천주교가 한국에 전래된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초기 용소막 성당의 공동체를 구성한 이들은 박해를 피해 숨어다니던 교우들의 당사자들과 그의 후손들로 신앙심이 절대적으로 깊었다. 성당 주변 시설들을 가꾸고 만들 때도 신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도시 성당과 시골 성당의 자매결연으로 지역적 교류를 공고히 하였다. 메주방 운영 등으로 생산한 생산품들의 판매와 구입, 이러한 기금으로 건립된 피정센터의 자유로운 이용 등은 서로 돕고 협동하면서 **신앙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어 평신도 중심의 한국천주교회의 발전상과 맥을 같이 한다.

용소막 성당은 신자 수가 줄어드는 시골의 규모가 작은 시골 성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작도 신자들의 힘으로, 지내온 과정도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앙심으로 지탱해 왔듯이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공동체는 굳건히 유지되리라 생각된다.



미사 해설이 미사의 경건함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해설은 미사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미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이 미사의 진행 순서에 따라 잘 참여하고, 그날 축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해설은 명확하고 간단한 설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105항 참조).

미사, 특히 주일과 대축일 등의 미사 때에 적절한 해설은 권장됩니다.

해설은 독서대가 아닌, 신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할 때 유의할 점은 침묵해야 할 부분에서 마음을 모으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조급함을 피해야 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56항 참조).

전례 가운데 이루어지는 침묵은 흐트러진 내면을 바로잡아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전례 거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때에 지켜져야 합니다. 예컨대 참회 예절 때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잠시 멈출 때와 ‘본기도’와 ‘영성체 후 기도’ 드리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고 초대할 때 잠시 멈추는 침묵은 정신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45항 참조). 강론 다음의 침묵은 들은 것을 잠깐 묵상하며 마음속에 반향을 일으켜 머물게 하고, 영성체 후의 침묵은 성체로 모신 그리스도와 만남이 더 깊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해설은 주일 미사 전체 내용과 해당하는 전례 시기, 곧 파스카 성삼일, 부활 시기, 사순 시기, 성탄 시기, 대림 시기, 연중 시기 등의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해설자가 미리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주례 사제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들, 7일 간의 사도좌 정기방문 일정 마쳐

- 9월 20일,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 -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9월 16일(월)부터 22일(일)까지 이루어진 7일 간의 사도좌(교황청) 정기방문 일정을 마쳤다.



▲ 2024.9.19.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23명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회원이 참석한 이번 사도좌 정기방문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와 바오로의 묘소 순례, 교황 면담, 교황청 부서 방문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단계로 이루어졌다.

주교들은 지난 2022년 반포된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에 따라 새로이 개편된 교황청 부서들을 방문하여 복음 선포와 교회 가르침의 수호, 사제 양성과 수도 성소,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 남북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활동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세계 주교단의 단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국 천주교회의 현 상황을 보고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묻고 응답하며,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 2024.9.20.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한국 천주교 주교단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를 요청한 데 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나의 한국이지만 두 개로 나뉘어진 분단된 한국의 상황은 큰 고통이며,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여러분의 고통을 저도 잘 알고 있으며, 이 고통의 상황이 빨리 개선되고 종결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고 하였으며,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한국 천주교회에는

“젊은이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젊은이들은 항상 시끄럽다. 시끄러움이 그들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젊은이들은 동반을 필요로 하기에 늘 그들과 가까이 있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주교들은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13개의 교황청 부서 및 위원회(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문화교육부, 그리스도인일치 촉진부, 종교간대화부, 미성년자보호위원회, 성직자부, 신앙교리부, 경신성사부, 복음화부 첫복음화와 신설개별교회 부서, 홍보부, 수도회부, 국무원, 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를 의무 방문하였으며, 시성부, 복음화부 세계복음화부서를 선택 방문하였다. 20일(금) 교황 알현 후 교황청 부서 방문 공식 일정을 마쳤으며, 21일(토)에는 평신도가정생명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19일(목) 오후 6시(이하 로마 시각)에는 바오로 사도의 무덤이 있는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주교회의의 부의장 김종수 주교의 주례로 미사를 거행하고 바오로 사도의 무덤을 참배하였다. 다음날인 20일(금) 오전 7시에는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있는 베드로 사도 무덤 앞 경당에서 주교회의의 의장 이용훈 주교의 주례로 미사를 거행하고 베드로 사도의 무덤을 참배하였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부터 한 시간 삼십 분 동안 한국 주교단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교황청 내 사도궁 클레멘스 홀에서 알현하였다.

이 밖에도 주교들은 9월 17일(화) 저녁에는 오현주 교황청 주재 대한민국 대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였으며, 9월 20일(금) 오후 4시에는 바티칸 정원에서 거행되는 ‘평화의 모후 모자이크 성화’ 축복식에도 참석하였다. 심순화(카타리나) 화백이 그리고 윤해영 작가가 모자이크 작업한 성모 성화 축복식에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바티칸 시국 행정부 행정원장 페르난도 베르헤스 알사가 추기경, 오현주 대사와 로마 한인신자와 유학 사제 및 수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교들은 9월 22일(일) 오전 10시 30분 로마 한인 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로 사도좌 정기방문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https://cbck.or.kr/> '소식' 참조.



10월 6일(주일) 건진성사(태장1동 성당)
8일(화) 재무평의회
12일(토) 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시회 미사(가톨릭센터 지하 전시장)
13일(주일) 사목방문 및 건진성사(장성 성당)

10월 / 공동 사명

교회가 사제, 수도자, 평신도 안에서 참여와 친교와 공동 사명을 증진하면서 공동책임성의 표지인 시노달리타스의 생활 방식을 모든 면에서 지켜나가도록 기도합니다.

들빛 이모 저모 제3회 순교자 성월 순례대회 / 9월 21일(토), 서지마을~강원감영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복음화사목국에서 2023년에 이어 진행된 “제3회 순교자 성월 순례대회”는 복자 최해성 요한과 최비르지타, 김강이 시몬이 걸었던 순교의 길, 비두리 마을에서 강원감영까지 1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약22Km(7시간)를 쏟아지는 비와 함께 산길과 들길을 걸으며,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순교자들의 삶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순례대회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은 원동 성당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며 그 마음에 동참하였고, 마무리 미사를 총대리 신부님과 여섯 분의 사제들이 함께 집전하며, 190여 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봉헌하며 미사를 마쳤다. 모두가 오래 기억될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 현실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 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보람과 기쁨의 복된 시간이었다.



사제 인사 발령

가. 발령 사항

No	성명	계시던 곳(면)	가시는 곳(임)	비고
1	김효영	대기	배론성지 주임	
2	김영웅	교포사목	휴양	배론거주
3	박동규	배론성지 주임	교포사목	빅토리아

나. 발령일 : 2024년 9월 26일(목)

10월 [희망의 순례]

[희망의 순례]는 최양업 신부님과 연관된 탄생지, 성장지, 사목지 30곳을 선정하여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희망하는 순례를 하면서, 전구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기적)이 드러나기를 기원하는 순례 운동입니다. 원주교구 순교자현양회 준비모임에서 **신시도 체류지** [희망의 순례]를 준비했습니다.

순례성지 : **신시도 체류지(신시도 11시 미사)**

출발일시 : **10월 17일(목) 07시 출발 / 출발장소** : 원주 따뚜공영장

지참물 : 음료수 및 개인 간식, 미사참례 도구 [희망의 순례지] 책자

참가비 : 20,000원(중식 포함) 농협 301-0324-3004-41 천주교원주교구

참가신청 : 010-5361-2276

*** 중요 : 전화로 신청하신 후 즉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선착순 40명입니다.**

교구 알림

재무평의회

때 : 10월 8일(화) 11시 / 곳 : 교구청

성서사십주간

비대면 : 10월 8일(화) 가톨릭센터, 20시

대면 : 10월 8일(화) 태장동 성당, 10시

10일(목) 황성 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하반기 전례 봉사자 교육

때 : 10월 12일(토) 9시30분~12시30분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주제 : '전례 꽃꽂이에 대하여'

강사 : 이해화 안젤라 메리치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회 자문위원)

대상 : 교구 내 본당 및 공소 전례 봉사자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개인 컵 또는 텀블러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교구 카나혼인강좌

때 : 10월 12일(토) 10시

곳 : 가톨릭센터 2층 강의실

접수 : 홈페이지 신청(당일접수 불가)

교육비 : 1쌍 40,000원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4차 교사학교

때 : 10월 20일(주일) 10시~17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세신종합주방 할인마트

김종운(도마)
 업소용 주방기구설비 제작전문
 가정용 그릇, 관공서, 닥트
 T.033-734-6060, 010-8793-5174
 원주시 천사로 258(학성동)

서울미소플란트치과

국태성(안토니오), 강로사(로사)
 서울대 치과병원 전문의 진료
 임플란트, 충치치료, 잇몸치료
 T.043-651-2275
 제천 용두천로 86(보령약국 건물) 3층

영웅앵글

함정선(말가리다) 조삼천(바오로)
 조립식 앵글선반/ 창고 공장 파렛트랙 설치
 T.033-742-9493
 원주시 평원로 106(학성동 331-3)

(주)강원도로마이트광산

김성배(프란치스코), 정찬아(글라리)
 고토비료, 골재, 부순모래, 조경석
 T.033-762-5252~5

법무사 전두표 사무소

전두표(바오로), 여성자(로사)
 등기, 민사, 호적, 법률상담
 T.033-344-3888, 2888 (황성군청 앞)

파리바게뜨 무설세영점

단팥빵, 크림빵, 케익 등 베이커리 일체.
 단체주문 환영
 장금자(테레사)
 T.033-745-8230, 010-5225-9861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안내

라파엘특선(동반자 100만원할인)
 *출발(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10일
 *출발(1.15) (2.11) (3.11) 포르투갈 파티마일주9일
 *출발(3.26) 이태리일주(대희년,전대사)9일
 대표 : 유재구 요한 02-778-8565

최경훈 내과(심장클리닉)

최경훈(마르코), 한숙자(헬레나)
 고혈압 · 심혈관 질환 전문
 대학병원급 심초음파 전문 장비 보유
 24시간, 72시간 심전도 검사
 24시간 혈동혈압, 동맥경화검사
 T. 033-742-7400 원주세브란스병원 앞

바른 한 의 원

바른치료 · 바른치료
 유경철(요셉) 신창숙(루시아)
 T.043-642-8585
 제천 중앙시장 1층 다동

주제: “천국에서 별처럼”(기쁨을 불러 일으키게 하소서)
 강사: 살레시오 수녀회 영성 사목팀
 내용: 주제강의 및 찬양, 기도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준비물: 필기도구, 개인컵, 미사준비
 참가비: 1인 20,000원
 신청: 10월 13일(주일)까지 033-765-4223
 문의: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원주·춘천 사제 운동회
 때: 10월 21일(월) 13시30분~17시30분
 곳: 흥천읍 생활체육공원

성소후원회 피정
 때: 10월 23일(수) 14시~24일(목) 14시
 곳: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본당 교무금 헌납시 '사제양성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교구내 모든 신자, 서울성소후원회 회원
 참가비: 1인당 20,000원
 준비물: 미사준비, 묵주, 개인컵(텀블러)
 신청: 10월 13일(주일)까지 선착순 100명
 신청서 또는 네이버폼 신청서 제출
 문의: 성소국 033-763-4220



피정 신청

미사·피정·연수

레지아 월례회의
 때: 10월 6일(주일) 13시
 곳: 원동 주교좌 성당

연령회 연합회 연습교육
 때: 10월 7일(월) 19시
 곳: 명륜동 성당
 문의: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서울 성소후원회 미사
 때: 10월 8일(화)
 곳: 명동성당 소성당
 문의: 성소국 033-763-4220

성 골롬반 외방선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10월 9일(수) 14시
 곳: 원동 성당 만남의 방

보건사목 봉사자 월례미사
 때: 10월 10일(목)
 곳: 교구청 경당
 문의: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성서부 예비봉사자 교육
 때: 10월 12일(토) 10시~12시
 곳: 가톨릭센터 202호
 문의: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7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
 때: 10월 12일(토) 10시~16시(미사 14시)
 곳: 천진암 성지(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203)
 주례: 이성호 리노 주교, 이한택 요셉 주교와 전국 사제단 공동 집전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모자, 도시락
 문의: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031-243-6171

ME 제7차 쇄신 주말 실시
 때: 10월 12일(토) 15시~13일(주일) 17시30분
 곳: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ME주말을 체험한 부부
 문의: ME원주협의회 주말후반과 010-3223-2475, 010-4245-4038

청년 연합미사
 때: 10월 13일(주일) / 곳: 청전동 성당
 문의: 청년·대학사목 033-766-4228

이주민 미사 및 한글공부
 때: 10월 13일(주일) 12시
 곳: 가톨릭센터 200호
 문의: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성체조배회 연피정
 때: 10월 17일(목) 9시~16시30분
 곳: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교구 내 성체조배회 회원 및 성체조배를 하시기 기도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
 강사: 신동걸 바오로 신부(우산동 성당 주임)
 참가비: 1인당 20,000원
 준비물: 미사준비(봉헌금, 미사책, 미사포 등)
 신청: 10월 11일(금)까지 F. 033-765-4223
 문의: 가정사목국 033-765-4225 010-5583-6402

수녀연합회 추계 연수
 때: 10월 22일(화) 10시~23일(수)
 곳: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교구 내 수도자
 강사: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기도학교 주임)
 신청: 10월 8일(화)까지
 문의: 수녀연합회 총무 010-8871-2085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바람,나(힐링피정) : 10.11(금)~13(일)
 성경완독 : 11.1(금)~9(토), 12.6(금)~14(토)
 문의: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010-3340-0201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 10.19(토)~20(일)/11.2(토)~3(일)
 3박 4일 : 10.24(목)~27(일)/11.28(목)~12.1(일)
 8박 9일 : 10.7(월)~15(화)/11.14(목)~22(금)
 40일 : 12.14(토)~25.1.22(수)
 곳: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채용·모집·기타

향심기도 모임 안내
 때: 매주 목요일 14시~16시
 곳: 봉산동성당
 대상: 향심기도 교육을 받은 분
 누구든지 처음 오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문의: 원주교구 향심기도회 010-7278-9894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관심있는 신자를 위한 모집과 안내
 문의: 삼척 형제회 010-2534-7194
 제천 형제회 010-5145-4671
 원주 형제회 010-4948-4943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안동교구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모집기간: 9월 9일~10월 2일
 입학문의: 054-851-3021~2

제22회 원주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시회

주제: '자비의 해'
 전시기간: 10월 12일(토) 16시~20일(주일) 17시
 전시장소: 가톨릭센터 지하 전시장
 오픈미사: 10월 12일(토) 16시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집전)
 회원 모집 및 문의: 010-9824-7302

들빛상담실 이용 안내

일시: 화, 수, 목, 금/ 14시~17시
 장소: 원주교구청 가톨릭센터 100호
 지도신부: 신헌만 시몬 신부
 문의: 010-5738-2032(문자예약 가능)

임마누엘 가톨릭결혼정보 이 수산나 50년 전통 최고의 성혼를 신앙을 바탕으로 최고의 만남을 주선 부모님 상담 환영/늦은 초혼·재혼 전문 T.02-757-3343 명동성당앞 태웅빌딩808호	3H 지압침대 원주무실센터 신순남(세라피나), 강일성(요셉) 목, 척추교정 및 허리디스크에 좋은 지압침대 T.033-735-3737, 010-8994-3775	연세프라임안과 이석준(미카엘), 박명호 각종 안과 수술 전문 T.033-731-2753 연세안과 현재현, 송정순(마리안나) T.033-731-0505	상지식자재 할인마트 이희(마티아), 김향수(엘리사벳) 최저가판매 및 납품 일반고객 환영 T.033-733-5400(우산동)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025.1/3 튀르키예, 그리스 495만원 1/7 스페인 남부 375만원 1/13 성모발현지 피정순례 475만원 1/13 멕시코 과달루페 570만원 www.cttour.org/T.02-2281-9070
연세민내과 의원 엄동호(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위 대장내시경, 간·유방·갑상선 초음파 고혈압·당뇨·만성기침·만성피로 증후군 8시 진료시작(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 86)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우명숙(글라리아), 김길영(마르티노) T.033-647-6063(강릉 임당동) 033-531-7887(동해 묵호동)	한일중기 볼보건설기계 송철희(대전안드레아), 김명옥(미리암) 볼보 중장비 정비/부품 T.043-645-0308, 010-8790-4800 충북 제천시 왕암동 998	(주)알렉스분석시험소 김만기(막시밀리안노콜레), 황병훈(유스토) 국제공인시험기관 분야: 폐기물 (PCBs), 수질, 생체독성,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건축자재방출시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T.033-744-2817 / www.alexlab.co.kr	